

고흥 5000만원 고소득 농어가 5000가구 육성

FTA 적극 대응... '비전 5000프로젝트' 본격 추진 군 친환경 농산물 등 농림수산물 예산 1233억 편성

고흥군이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림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물수출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비전 5000'은 ▲5000만원 이상 고소득 농립어가 5000가구 육성 ▲농·수산물 수출 5000만 달러 달성 ▲농·어업 소득액 5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역점시책이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올해 총 예산 3966억원 가운데 31.1%인 1233억원을 농림수산물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는 지난해 보다 166억원(16%)이 늘어난 규모이다.

군은 '비전 5000 프로젝트'의 핵심 방향을 ▲농림수산물 식품의 부가가치 향상 ▲생산물 절감 ▲경지이용률 증대 ▲유통활성화 등에 맞추고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마늘, 마케팅 혁신, 종합 처리시설 건립 등 브랜드 육성사업을 3년간에 걸쳐 추진한다. 아열대 과수와 오이, 딸기

등 비닐하우스와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순수 군비로 조성한 '농·어민 소득지원기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차역 보전과 담보부족 농·어가 신용보증 지원 등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식자재의 학교급식 납품에 대비해 무농약 인증을 전제 경지면적의 25%까지 끌어올리고,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환경개선과 조사료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FTA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석류 향토산업, 유아전라식품산업 등을 추진하고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 등 친환경 농산물 가공 인프라 구축

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5000만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고흥 유자의 수출 거래처를 다양화하고, 수산물 수출업체 체질강화는 물론 ▲대규모 수출업체 단지 조성 ▲교사리·두름·더덕 등 재배를 통한 산림소득 향상 ▲수산물 기반 시설 확충 ▲가공 유통시설 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재정운영 방향을 '돈 버는 농업'과 '경쟁력 있는 농업', '고부가가치 농·수·축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ju@



곡성 두가 현수교 내달 준공... 관광명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 명칭 새로 공모키로

지난 2010년 8월 집중호우와 심진 강령 방류로 인해 유실됐던 곡성군 '두가 현수교'가 새롭게 태어났다.

곡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1일 두가 현수교를 임시 개통했다.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와 고달면 두가리를 잇는 두가 현수교는 국내 보도 현수교 가운데 최장(길이 200m·보도폭 3m)으로 아름다운 심진강 자연경관과 더불어 곡성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군은 특색있는 경관조형 설치와 주변 정리 등 마무리 작업을 완

료하고 다음달 초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두가 현수교 명칭을 공모를 통해 상징적인 이름으로 새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주민행복 불려내는 것은 물론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순천정원박람회장 조성 순조 수목원 등 전체 공정률 45%



순천시가 내년 4월 열리는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행사장의 완벽한 조성과 실행계획의 구체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조성공사 토사반입이 100% 완료됐고, 큰나무 4000주 이상 식재되는 등 주박람회장 공정률 45%, 국제습지센터(조감도) 건립 사업 45%, 수목원 및 습지 조성공사 40% 등 전체적으로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

인 세계 각국의 전통정원과 테마정원 등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참여국 관련 전문가들이 잇따라 순천을 찾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사가현 관계자들의 방문을 시작으로 1월에는 일본 고치현, 2월과 오는 3월에는 박람회장내 중앙호수 공사 자문을 위해 영국 코스믹 스페셜레이션의 세계적인 조정 설계가 찰스젠스와 릴리젠스가 방문할 예정이다.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1064억원(국비 149억·도비 90억·시비 825억원)으로 1월 현재 888억원(국비

125억·도비 58억·시비 705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국비 24억원과 도비 32억원은 2012년 추경과 2013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사업 100억원, 세계적 생태관광 모델을 위한 국제 컨설팅단 운영 3억원 등

총 137억5000만원의 국고 지원사업을 발굴해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지구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라는 주제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중소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올해 직업능력 개발사업 기능확충과 국가기술자격 집행업무 일부 중목 민간 기관 위탁을 통해 명실공히 일과 학습을 연계한 '직업능력 개발 허브기관'으로 거듭난다.

직업능력 개발 주요사업으로는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청년 취업 아카데미 훈련지원 등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숙련 기술 장려사업(기능경기, 기능전송 등)이 있다.

특히 그동안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에서 수행해왔던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수행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기능이 대폭 확대됐다.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해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은 해당 년도 고용보험 계산보험료의 240%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기표 전남지사장은 "올해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평생직업 능력개발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순천시의회 조례안 개정

순천시의회가 임대아파트 관리비 지원, 수도요금 감면 등 경제적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2건의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9일 건설사 부도 등으로 하자 책임 주체가 없는 임대아파트(주택) 입주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아파트(주택) 시설·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순천시 공동주택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월 수도요금에서 3m에 해당하는 요금(3000원)을 내던 1월부터 감면해주는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 북

"올해는 입학식 못해요"

농어촌 학생수 감소... 신입생 없는 초교 13곳 달해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내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이 감소하며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417개 분교와 분교장의 초등학생 신입생은 1만 5958명으로 전년 대비 745명(4.4%) 줄어 들었다.

도내 초등 신입생은 지난 2005년 2만4581명, 2006년 2만2974명 등으로 줄어 들었다. '밀레니엄 베이비'의 영향으로 2007년 2만 3267명으로 늘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올해 학급당 평균 정원을 21.6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군산 해

성초와 무너도초 등 34개 학교는 2개 학년을 묶어 1개 반으로 편성하는 복식 학급으로 운영한다.

이들 학교는 모두 농·어촌 벽지에 있어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재학생 수도 대부분 10~3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군산 대야남초와 오봉초 등 도내 13개 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으며, 신입생이 5명 미만인 학교도 74개교에 달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크다"며 "농·산·어촌의 경우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감소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KTX 정읍역사 지하차도 건설 원안대로 추진하라"

정읍시·사회단체 백지화 반발

정읍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역사와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계획 백지화 검토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과 지역사회단체 대표들은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계획 재검토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시는 KTX 정읍역사와 지하차도 건설에 맞춰 행정력과 예산 등을 전력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단 측의 조변석개식 정책으로 정읍 청사진과 전북 교통중심지로의 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생기 정읍시장과 지역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역사와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계획 백지화 재검토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시장은 "원안대로 정읍역사와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도록 시민, 정치권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정읍지역 기관과 시민단체들은 호남고속철 정읍역사·지하차도 백지화 검토 반대성

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관계부처에 송부했다.

이와 함께 시와 시민단체들은 원안 추진을 위한 범시민결의대회를 전개하는 한편 공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역사와 지하차도 건설은 역세권 개발, 지역 균형발전, 구도심 활성화를 앞당기고 지역발전의 이력 역점 사업"이라며 "건설계획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지리산 바래봉 등반대회 오세요

28일 개최... 선착순 접수



'제1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등반대회'가 오는 28일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 일대에서 열린다.

지리산 북부산악구조대 주최로 열리는 이번 등반대회는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한 손영조 대장군을 기린다.

이번 등반은 50~7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운봉읍 허브밸리 주차장을 출발해 바래봉 정상까지 왕복 4시간 코스를 걷는다.

등반을 완주한 등산객에게는

남원 쌀과 기념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 6일 남원시 운봉읍에서 개막된 '제1회 바래봉 눈꽃축제'는 다음달 25일까지 대규모 눈싸움대회를 비롯해 눈 조각 만들기, 눈사람전시, 등반대회 등 각종 체험행사가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남원시 친환경 쌀 재배면적 1000ha로 확대

2015년까지... 희망농가 이달말까지 신청접수

남원시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남원시는 "학교급식 확대와 안전농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337ha인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2015년까지 1000ha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학교급식 등 유통망 확충에 힘쓰고, 친환경 벼는 농협 등에서 책임수매해, 농가에서는 친환경 쌀 생

산에 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희망하는 작목반이나 농가는 이달 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경지면적의 5.1% 수준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2015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산에 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희망하는 작목반이나 농가는 이달 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경지면적의 5.1% 수준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2015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한지공예대전 출품작 4월 20일까지 공모

전주시와 한지문화축제로조직위원회는 '제18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출품작을 4월 20일까지 공모한다.

출품 부문은 ▲전통(지호·지승·전지·장지) ▲현대(한지조형·회화·다종이 인형 등) ▲문화상품(한지를 소재로 한 상품화가

가능한 작품) ▲창작한지(수목한지·응용한지) 등이며,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진행된다.

입상작에는 최고 800만원의 상급과 상장을 주며 전주한지문화축제 기간인 5월 3~6일에 공예품 전시관에 전시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경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강력 단속

김제경찰서는 겨울방학과 졸업시즌 등 새 학기를 앞두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일탈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말 까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뿌리뽑기에 나섰다.

김제경찰은 청소년 상대 주류판매·제공행위와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목인 및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등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이상주 서장은 "시민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이 없는 '청소년 클린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민속국악원 '달리는 국악무대' 개최지 접수

국립민속국악원은 국립단체의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지역을 위해 운영하는 '달리는 국악무대' 개최지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오지학교,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공익목적의 단체 등 문화 소외지역으로 이동무대 차량의 이동과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공연은 4~10월 연중 10회 개최할 예정이며 희망지역 공모 후 이동무대 차량 운영의 직접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최지를 최종 선정한다. 희망지는 2월 17일까지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순창군 울무·덧 등 수거 야생동물 보호

순창군은 울무와 덧 등 불법업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 활동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최근 불법업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수거활동에는 산림측산과,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순창지회,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순창지회 회원 등 총 40여명

이 참여해 울무 95점의 불법업구를 수거했다.

순창군 산림측산과 고해중과장은 "불법업구 설치 및 보관 등으로 야생동물보호법에 위반되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